

# 불교의식의 현대화를 위한 '렉처(Lecture) 콘서트' 의식 찬불가의 '새 모델' 한 번 들어 보세요

지난 40여 년 간 불자의 마음속에 귀의와 발심 그리고 서원을 심어주었던 찬불가의 과감한 변신을 모색한 콘서트 가 열린다. 불교의식을 연구해 온 윤소희(동국대 강사)씨가 새로운 형태의 의식 찬불가를 내놓는다. 작곡한 곡들을 해설과 함께 소개하는 '렉처(Lecture) 콘서트' 형식이다.

5월 2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펼쳐질 공연은 '삼귀의' '청법가' '사홍서원' 등 기존 의식용 찬불가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이날 '렉처 콘서트'는 예술적 크로스오버(CrossOver)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실험적이다. 완성도 높은 의식 찬불가로 바로 현장에서 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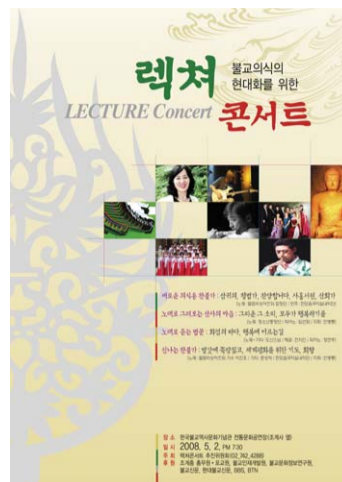
용될 가능성 또한 엿 볼 수 있다.

1부는 '새로운 의식용 찬불가'와 '노래로 그려보는 산사의 마음'이라는 레파토리로 진행된다. 보다 대중친화적인 표현 방식을 도입한 새로운 의식용 찬불가를 개발하고 그 쓰임의 가능성을 선보인다. 윤소희씨가 새로 발표하는 '삼귀의' '청법가' '사홍서원' 등 의식 찬불가는 국악의 장단을 수용한 장중하면서도 경쾌·유아한 선율을 특징으로 한다. 70명의 연합 합창단이 노래하는 '마음의 등'은 정적이고 엄숙한 찬불가에서 벗어나 피아노, 목탁, 장구 등 타악기 반주에 울동을 가미했다.

2부는 '노래로 듣는 법문'과 '신나는 찬불가'라는 레파토리로 진행된다.

<티베트 라마가 전하는 행복에 이르는 길>의 저자 라마 쇠바 린포체의 글에 해금과 피아노 연주에 맞춰 도신 스님이 노래한다. 국거리 장단의 흥겨운 리듬에 맞춰 수행의 길을 신명나게 표현한 '방가에 죽장질고'와, 종교, 인종, 국가의 벽을 넘어 온 인류가 평화의 바다에서 하나 됨을 노래한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는 LMB싱어즈와 비로자나 합창단이 함께한다.

국악은 물론 일렉트릭 밴드가 합연하고 합창과 비보이 댄스가 어울리는 이번 음악마당은 완성도 높은 의식용 찬불가의 개발과 보급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02)742-4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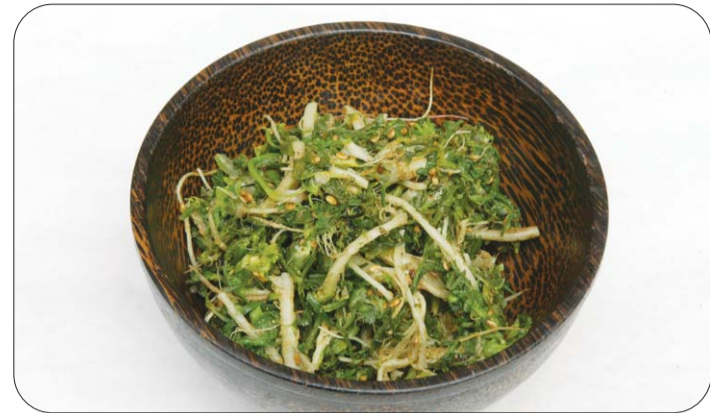
가연숙 기자 ormlflower@daum.net



##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신촌 대표·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 냉이나물



나물보다 약초로 많이 이용되 제채라고 불러  
봄철 기운없을 때 죽에 넣어먹으면 기력 되찾아

냉이는 제채(齋菜)라고 부르는데, 예로부터 나물보다는 약초로 많이 이용돼 왔습니다.

<본초강목>에서는 냉이가 "경기하는데 좋고 뱃속을 고르게 하며 오장에 이롭다"고 했으며 또 겨울에도 냉이죽을 먹으면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간을 도와서 눈이 밝게 해준다고 합니다. 민간요법으로는 냉이의 줄기와 잎을 태운 재를 이질에 사용하였고, 뿌리를 다려 먹으면 눈병을 낫게 한다고 합니다. 특히 냉이는 자궁의 출혈, 폐출혈의 지혈제로서 이용되었는데 노, 해열, 지열의 효과가 뛰어나다.

냉이는 눈병에 포함한 단백질, 비타민, 회분, 섬유질, 탄수화물, 칼슘, 인 등의 영양성분 풍부합니다.

냉이는 눈을 밝게 하는 데도 좋습니다. 줄기와 뿌리를 달여서 차 마시듯 오래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눈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눈이 까칠하고 통증이 약간 나지 않다면 며칠 지나면 통증이 없어지고 눈살이 삭아 없어집니다. 눈이 충혈되고 아프며 까칠까칠한 느낌이 들 때는 냉이를 짓찧은 다음 곱게 걸러서 눈에 한 방울씩 넣으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냉이는 간을 튼튼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기운을 나게 하고 위를 튼튼하게 하며 소화를 잘 되게 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출혈을 멎게 하는 데 매우 좋은 효력을 지닌 약초입니다.

이른 봄철 몸이 나른하고 기운이 없고 밥맛이 없을 때 냉이를 잘게 썰어서 죽에 넣어 끓여 먹으면 곧 밥맛이 좋아지고 기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냉이는 음력 4월 8일에 채취해 그늘에 말린 것은 풍독사기를 없애는 효과가 있고 눈이 아파 눈물이 흐를 때,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약효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청나라 때 육식을 하는 사람은 냉이를 먹으면 위장을 씻어 준다고 하여 정장초(淨腸草)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식생활이 육식으로 바뀌고 있으므로 냉이를 섭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냉이나물 재료: 냉이, 참기름, 간장, 깨소금

#### 만드는 법

- ① 냉이는 뒤집어서 잎과 뿌리가 닿는 부분을 깨끗이 손질한 후 한입크기로 잘라낸다.
- ② 냉이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낸 후 바로 차가운 물에 담갔다 소쿠리에 건져 둔다. 이때 데치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으면 파랗게 데쳐진다.
- ③ 데친 냉이를 꼭 짰 다음 간장과 깨소금을 넣고 손으로 털듯이 간이 고르게 배게 무친다.
- ④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넣고 털듯이 버무려 낸다.

## 좋은벗 풍경소리 부처님 오신날 기념 음악회 열여 부처님 오신날 신나는 음악축제

"부처님 오신날, 신나는 음악으로 함께해요!" 음악으로 부처님 법을 전달해 온 좋은벗 풍경소리(회장 성행)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신나는 기념음악회를 준비했다. 음악회는 서울과 영주에서 각각 진행된다.

먼저 서울에서 열리는 음악회는 '붓다콘서트'라는 이름으로 5월 1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진행된다. '붓다콘서트'에는 뉴트리팝스오케스트라(지휘 이종만)와 정태옥(오페라가수)·손아타(불교 래퍼)·강혜윤(찬불 가수)·정유탁(풍경소리 작사작곡가)·은수정(재즈 싱어)씨가 참여해 열린 무대를 펼치게 될 예정이다.

붓다콘서트에서 연주될 곡은 뉴트리팝스오케스트라의 'Cinema paradiso(시네마 천국)' '베토벤 운명 파스' 'Wonderland(원더랜드)

등의 경쾌한 세미클래식 곡들과 랙곡 '반야심경', 찬불가요 '연꽃이 피었어' '봄바람 꽃바람' '육환장' '당신에게 자비를' '오늘은 좋은날' '너와 나' 등이다.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기획실장은 "이번 콘서트에서는 클래식과 찬불가요를 적절히 배합해 불자들이 불교의식 또는 찬불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리타분'하다는 편견을 깨려한다"면서 불자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서울에 이어 영주에서 열리는 음악회는 '청량 봉축음악회'로 차별성을 가진다. 5월 9일 오후 7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인근지역인 봉화·문경시민들도 참여,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는 잔치마당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영주 마하합창단 음성공양과 이종만밴드의 공연으로 알차게 채워진다. 02)723-9836 김강진 기자



##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를 사색하라

명상에 잠긴 불상의 머리에 전두기가 날아와 폭 박혔다. 이 민망하고 참혹한 광경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의 모티브를 불상이라는 절대 가치에 '충돌'시킨 작품은 조각가 서영배씨의 '무시무중(無始無終)' 시리즈의 하나다.

출가 경험이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불상에 친착한 것일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우리' 즉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무엇을 나눌 것인가?" 삶의 근원을 역설



하는 작가의 진지함에서 관람객들은 시작도 끝도 없는 대답을 듣는다.

전시 주제 '무시무중-이미 오래 전 예견된 일'에서 오늘의 우리가 반드시 오늘의 우리일수만 없음을 일깨운다. 작가는 "대결 구도가 만연한 현대문명 속에서 나와 너, 차이와 소통에 대해 사색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서울 인사동 쌈지길 갤러리 쌈지에서 4월 9일 시작된 전시는 27일 까지 계속된다. 02)736-0008 임연태 기자

## 종교와 예술의 만남

불기 2552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여 (사)동희범음회(東熙梵音會 대표 동희 스님)가 4월 18일 2회(오후4시, 7시 30분)에 걸쳐 서울 조계사 내에 위치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미주 순회 귀국공연'을 연다.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교육보조자인 동희 스님을 중

심으로 범패와 작법을 오랜 시간 수련한 범음회 소속 스님들이 펼치는 불교 예술의 진수이다.

동희 스님은 비구니 여장(魚丈)으로 대어장 박승암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초대보유자) 문하에서 본격적인 범패를 전수 받은 제자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명발, 육법공양, 향화계, 법고무, 기경작법, 화청 등이 시연된다. 입장료는 R석 5만원, S석 3만원. 02)923-8180(자인사) 가연숙 기자

사찰, 법당, 영상음악, 설비공사

### 음향설비, 설치공사 · 앰프 · 마이크 · 스피커 · 무선마이크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트윈미디어의 특허품

국내최초 전기가 없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음향기기 "엠펙플러스" (400W급)

AC전원, USB충전, 차광 겸비, 소형/대형용 재생, 스피커, 배터리를 충전, 무선 마이크, 유선 마이크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가능(아전에도 녹화 가능함)

사찰 CCTV 설치

사찰 하이파이 앰프

트윈미디어 방송·음향·영상설비전문업체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대표 최유향  
Tel 02)2265-4288, 2275-8079, H-P 010-8705-4288  
• 계좌번호 : 신한은행 011-229-849384 최유향

세계로 가는 서병후의 불경영어 · 천수경

## 수리수리마하수리

THE THOUSAND HANDS SUTRA

Mystical Gateway to Happiness and Enlightenment

책 1권, 오디오테이프 3개포함  
20,000원 → ₩ 14,000원  
저자 서병후 | 156쪽 | A5  
출판사 : 도래미음악출판사

보다 활발한 한국 불교의 해외 포교, 그리고 신세대 지식인들에 의한 넓은 시야의 불교 공부와 수행을 위한 기본적 불경 영어 가이드로서 기획된 이 책은 전수경을 첫 텍스트로 했습니다.

영어화된 산스크리트어는 영어로 다루고, 그 표기도 표준적 국제 시스템에 따랐습니다.

자비와 깨달음의 감로를 내려주시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구원의 염원이 담긴 천수경의 신비스런 비밀공식이 우리를 앞에 펼쳐집니다.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불교를 연구해 왔고, 풍부한 영어교육경험을 갖춘 필자가 선사하는 최초의 영어원역 천수경과 현대적 시각의 주해, 통쾌할 정도로 행간을 꿰뚫는 새로운 해석은 우리들을 감동케 할 것입니다.

온라인 책방 여시아문  
02)737-0695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